

■ 그래픽 경제

지역별 근로자1인당 평균소득

2020년 귀속근로소득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값)



*기타는 주소지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 등
자료: 국세청,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실, 연합뉴스

광주 근로자 평균연봉 3,590만원

지역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1,000만원 이상 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38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보다 550만원 많았다.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4,520만원)였다. 울산(4,340만원)은 세종과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1인당 총급여액이 4,000만원에 못 미쳤다. 제주(3,270만원)의 1인당 총급여액이 가장 낮았고 이어 전북(3,400만원), 인천(3,410만원), 강원(3,440만원), 대구(3,500만원), 부산(3,520만원), 경북(3,560만원), 경남·충북(각각 3,580만원), 전남·광주(각각 3,590만원), 대전(3,710만원), 충남(3,730만원), 경기(3,890만원) 등이었다.

돼지고기 관세 면제...소비자가 하락? 글썽

광주 삼겹살 작년비 11.8% 경증
정부, 가격 인하 강제할 수 없어
물류비 등 상승...효과는 미지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광주지역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kg당 2만 8,630원으로 지난해(2만5,618원)보다 11.8% 상승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월(1만 8,964원)과 비교하면 51.0%나 오른 가격이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증가와 소비자의 수요 급증으로 축산물 가격 상승 압력이 심화됐다. 여기에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인 독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수출을 중단하고, 미국·유럽 등의 돼지고기 단가 상승에 따라 수입산에 국내산으로 대체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곡을 다변화시켜 소비자의 지갑 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캐나다·멕시코·브라질의 돼지고기는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지만 최대 25%의 높은 관세와 운송비용으로 수입량이



9일 광주지역 대형마트를 찾은 한 고객이 축산코너에서 삼겹살 가격을 비교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이 많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해당 국가의 수입량을 늘림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 이상에 달하는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원가가 최대 20%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내에 수입되는 돼지고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미 상당수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실감할 수 있을 만한 효과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미국(36.4%), 스페인

(20.1%), 네덜란드(8.9%), 오스트리아(7.2%), 칠레(7%), 캐나다(6.6%), 덴마크(5%) 순이다. 이 중 8.6%의 관세가 붙는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FTA 체결로 이미 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광주지역 한 대형마트는 현재 물량을 전부 소진한 후 면세조치에 적용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가격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산 돼지고기를 육가공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관세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곡물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과 사료값 상승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유통업체에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 없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갈지도 불투명하다.

광주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관세가 적용된다면 육가공업체에서 받는 공급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수입산은 보통 반 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또 관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적용되는 품목이 많지 않고 이외에도 물류비 등 다양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효과가 클지도 미지수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산인공, 과정평가형 자격 설명회

16일 광주테크노파크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16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직업계고,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광주권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과정평가형 자격의 정책

방향 및 운영절차는 물론 정규교육기관 우수사례, 모집신청서 작성요령 등 세부적인 내용을 들 수 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내·외부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혜린 기자

광주상의, 전자입찰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광주지역 기업의 전자입찰 낙찰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광주지역 기업의 공공 및 민간 입찰 낙찰률을 높이고, 입찰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기업 13

개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가 기업 니즈를 파악 후 1~2차례 기업에 방문해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각종 증명·인증 발급 및 등록 준비 지원, 동종 업계 낙찰현황 분석, 사정을 예측 및 적정 투자 금액 산정 등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관련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연수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DFORM PARK 시스템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DFORM PARK 시스템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쉐어링홀